| 현불 논단 |

'갑질 사회' 벗어나기 위해선…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논란
여론 뭇매 · 당국 조사까지 이어져
권력층 윤리의식 미성숙함 확인

갑질 비판 · 문제제기 있어야 극복
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용기내서 자신의 권리 주장해야

평등한 대우받는 사회가 '불국토'
당신 이웃이 '부처' 임을 상기하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심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던져 재벌일가의 갑질논란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 부사장의 친동생이다. 보도에 의하면 조씨 집안의 갑질행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은 2005년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손녀를 안고 가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말썽을 빚었고,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말 그대로 '갑질 가문'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어본 사람들은 괴성에 가까운 쇳소리에 소름이 돋을 것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위해 개설된 사내 카톡방에 9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는 그동안 대한항공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탈법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당국의 조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필자는 갑질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씁쓸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적 시민의식이 그만큼 미성숙했다는 한국 특유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는 이와 같은 갑질을 가리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력자인 대기업 오너 가족이 보이는 매너 없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덧붙여서 그는 "그렇다고 이를 노예들의 합창처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문제제기를 해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질을 '을' 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인과 노예의 주종관계로 전락하게 되어 감히 주인을 극복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새겨들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2030세대들이 힘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갑질에 분노하고 이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취업절벽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나의 권리' 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찬 젊은이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은 시민적 각성을 갖춘 2030세대야말로 기성세대의 볼썽사나운 갑질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더 나아가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미래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사실 '미투 운동' 과 '갑질 근절 운동' 은 본질상 같은 속성을 갖는다. '갑' 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참고 견뎌보겠다는 '을' 의 인식만으로는 부정의한 '갑을관계' 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시대착오적인 갑질 문화를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사회이자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국정토' 에 다름 아닐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 갑질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불성을 가진 예비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社說

한반도 평화, 불교가 이끌자

2018년 4월 27일 9시 29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오후 5시 40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을 내놨다.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체제 확립이 주요 기조로 담겼으며,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일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남 · 북 · 미 3자 혹은 남 · 북 · 미 · 중 4차회담 개최 등을 세부 사항으로 내놨다.

이번 ' 선언' 으로 70년의 냉전이 종식되는 시작점에 남한과 북한은 섰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야하지만, 이번 선언으로 남 ·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결과를 내기까지 불교계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조계사 범종을 타종했다. 회담 당일 아침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 1만 5천 곳에서 범종 타종이 이뤄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개최한 행복바라미 축전에서는 2만여 불자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금강경〉을 독송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한반도 정세는 이제 갈등에서 '평화' 모드로 전환됐다. 불교계는 문화 교류 등을 통한 통일 불사에 나서야 한다. 진정성과 신뢰로 남북 불교계가 교류를 이뤄가면 언젠가는 통일과 한반도 평화라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불교가 이끌어야 한다.

자비 등불 밝힐 연등회를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이 머지않았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환희의 물결이 일고 있다. 또한 5월 11~13일간 대한민국 문화1번지 종로 일대에서 펼쳐질 2018 연등회에서는 10만 개에 달하는 연등과 장엄등이 거리를 수놓고, 전 국민의 화합을 이끌 노랫말과 선율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즈음 불자들은 으레 사찰을 찾아가 개인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등을 단다. 단순히 불보살의 가피를 바라는 이와 스스로 성취하기 위한 결심의 방편으로 삼는 이 모두 생각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연등에 많은 것을 담는다. 이처럼 내 손으로 직접 등을 달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힐 때다.

연등 불빛은 흔히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무명(無明)을 걷어내는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그렇기에 연등은 곧 수행의 의미를 갖고, 불을 밝혀 어둠을 밀어내는 과정을 상구보리(上求菩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과 생명 간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거듭난다. 올해 연등회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 바로 이 과정을 축약해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음치유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곤 하지만 삶이 과거보다 더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부디 연등회를 이끄는 한국불교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신을 사회에 보다 널리 전하길 바란다. 불자 개개인 모두 눈에 보이는 등만이 아닌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둠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자.

특별기고

② 페트라 · 예루살렘서 보내는 편지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1일까지 승려해외연수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해외문명기행' 을 진행했다. 당시 연수 진행을 담당한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서간문 형식의 기행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스님의 기행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화해 · 관용의 세상을 기원합니다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대상무역로의 중심이었던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페트라 유적은 드라마 '미생(未生)' 의 마지막 장면의 무대로, 세계인에게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성배의 진실' 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미생' 의 마지막 장면에 페트라의 알 카즈네 신전을 배경으로 중국 대문호인 루쉰(魯迅)의 소설 '고향' 중의 한 대목이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오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希望)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나 또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최초(最初)이자 최고(最高)의 길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내 삶과 수행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희망의 지표(指標)로 남고 싶습니다.

페트라 유적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페트라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역시 장밋빛 사암을 깍아 만든 신전이자 무덤인 알 카즈네 피라움(파라오의 보물)입니다. 높이 40m, 너비 28m의 정면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入城)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먼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 나치에 의한 600만 명의 대학살의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인지라 눈물을 짓게 됩니다. 연기(緣起)와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를 통한 화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통곡의 벽' 을 참배하니 저 멀리 황금돔 사원과 대비되어 통곡의 벽에 모인 유대인의 아픔과 한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도 갔습니다. 예수탄생교회를 참배하며 말구유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설치된 그 말로만 듣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우리 DMZ 휴전선 장벽이 떠올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전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위에서 지도법사 혜국 스님을 모시고 회향식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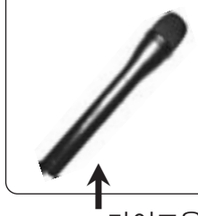
한국에서 준비해온 노란 리본을 매달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함께 하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리본 사이로 눈물과 한이 서린 예루살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곡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언제쯤 이곳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USB 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 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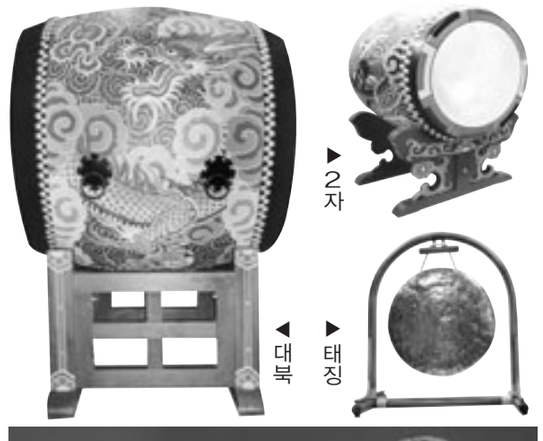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2자
◀대북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